

자연이 만든 신비의 극치 속 보물 찾아 사람들에게 널리...



역 고드름의 신비와 조선왕조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진안 마이산은 보물 같은 관광지 원들이 가득하다.
자연이 만든 신비의 극치가 마이산이라면, 인간이 만든 신비의 절정은 자연석을 쌓아 만든 탐사가 있다. 또 보물 패부를 소장하고 있는 금당사 사찰과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이산묘, 그 주변의 유서 깊은 유적지와 마이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이루어진 탐영제 등 명소가 많다.



탐영제 수변공원 조성 추진 11월 역사문화경관 명소화

진안군은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마이산남부의 지리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 관광지개발 사업으로 마이산을 탐방하는 탐방객이 머물면서 탐영제 주변을 관광할 수 있도록 탐영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행인도 정비와 함께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탐영제의 물 위를 걷는 듯한 부유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한 부유분수를 설치해 자연에서 힐링 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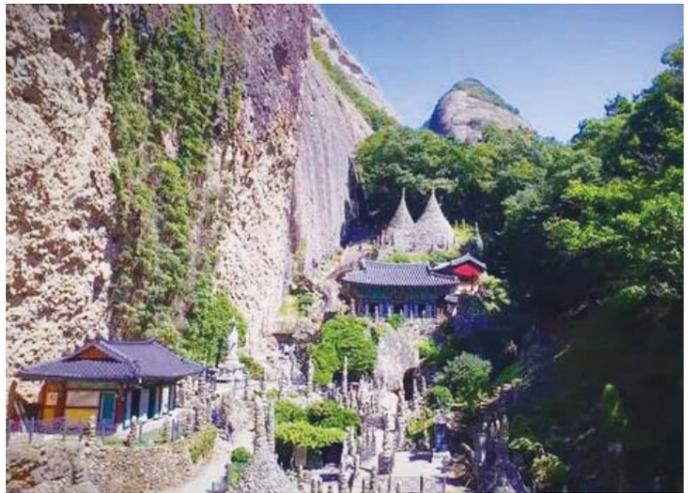
진안군은 당초 올해 11월 준공예정 시점을 앞당겨 가을 단풍철 이전에 완료토록 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역사문화경관명소화 사업은 단군, 조선태조, 세종대왕, 고종황제의 위패를 봉안하고 조선시대의 명현 41분과 을사조약 이후 순국선열 34분의 위패를 배향하고 있는 이산묘 주변을 정비하여 숨은 유적지(주필대, 마이동천, 비례물동, 용비위, 대한건곤청구일월)를 부각시킬 계획으로 역사와 문화를 학습

하는 명소로 추진 중이다. 또한, 이산묘에서 마이산 남부 매표소까지 보도 정비와 금당사에서 탐영제 저수지까지 보행로 정비 등 포함해 오는 1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2019년 마이산남부 주차장 확장과 2020년 마이산 남부의 신비를 주제로 한 '신비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신비한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이산 남부 관광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탄생한 명소와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변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개발하여 마이산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토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전화)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99

홍보대사 류수영